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방안

남성희,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Way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Implication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SungHee Nam, JongSerl Chu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that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s for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matic analysis was done on the feedback gathered from a focus group interview of 5 instructors with ample service experience at smoking cessation programs provided in school settings. **Results:** This study has identified 9 categories of initiatives that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programs. These nine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the following 4 themes. 1)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intervention : the programs should be restructured to allow more instruction time and better instruction environment; 2) Improvement in the content of intervention: the programs should develop differentiated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3) Importance of rapport, adolescents' interests and compensation: the program should be more interesting to adolescents and provide rewards based on the rapport between instructors and adolescents; 4) Cooperation among smoking cessation instructor, school, and community: instructors, teachers at schools, and communities should cooperate actively with one another. **Conclusions:** The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s will benefit from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improving its effectiveness in smoking cessation in adolescents.

Key words: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dolescents, Focus group interview

I. 서론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정부의 시책으로 삼아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Korean Ministry of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10년 12.1%로 2005년도의 11.8% 보다 오히려 증가되었다. 남녀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5년도의 8.9%에서 2010년 7.1%로 매해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2005년도 14.3%에서 2010년 16.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5년에 정부시책의 목표로 잡은 2010년도 여자 청소년 흡연율 2% 및 남자 청소년 흡연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Corresponding author : JongSerl Chun

11-1 Daehyun 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길 26 (대현동 11-1),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우: 120-750)

Tel: +82-2-3277-6696 Fax: +82-2-3277-6696 Email: jschun@ewha.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09-332-B00295).

▪ 투고일: 2012.7.24

▪ 수정일: 2012.8.27

▪ 게재확정일: 2012.9.17

이들 중 매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6%로 2005년의 3.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 흡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하나,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신체와 뇌가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 결과, 담배와 같이 유독성 물질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더 치명적이다(Cho, 2004). 둘째, 담배는 입문용(gateway) 물질로서 흡연을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음주나 다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Park & Ryu, 2000). 셋째,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성인기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에 비해 니코틴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1994).

이와 같은 청소년 흡연의 증가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Yu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약 20%가 최근 1년간 금연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Kim & Kang (2007)의 연구에서도 학교 보건 교사들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일 년에 두세 번 정도의 금연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중인 남자 중학생의 85.3%와 여자 중학생의 89.5%가 금연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의 조사에서 보듯이 금연을 시도한 약 73-75%의 청소년들이 금연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George (1992)의 연구에서도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금연을 원하고 강한 동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금연에 실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청소년들이 높은 금연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성공한 사례는 적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집단 금연 프로그램이 청소년 금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Kim, Park, & Park (2008)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흡연 지식의 증대, 흡연량의 감소 및 흡연 태도의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미국에서 이루어진 Sussman, Sun, & Dent (2006)의 메타분석에서도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실시는 청소년들의 금연 가능성을 46%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대상 메타 연구들은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1에서

.3 정도, 즉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로 보고하였다(Wiehe, Garrison, Christakis, Ebel, & Rivara,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방법과 내용은 그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연은 국가 중점사업으로, 성인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보건소 등 관련 조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는 거의 없다(Hwang, 2010).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흡연지식과 태도변화에 초점을 맞춘 1회성 교육이거나, 금연 전문 교육기관에서 흡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집단교육이 대부분이다. 또는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Hwang, 2010; Lim, 2010).

위에서 제시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기반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금연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흡연의 원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Han, Ha, Park, & Lee, 2005). 일반적으로 청소년 흡연 지속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나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니코틴 중독이 그 하나인데, 니코틴은 신경학적 적응 과정을 통하여 내성과 신체적 의존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흡연량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흡연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Kim, 1999). 더욱이 청소년의 경우 적은 양의 흡연으로도 니코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다(Kim & Kwon, 2006). 사회적 원인으로는, 또래집단의 압력이나, 친구의 흡연, 흡연을 하는 가족구성원과의 동일시 경향 또는 흡연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Kim, 1999).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에 대한 왜곡된 믿음, 잘못된 속설(예를 들어 ‘흡연이 집중력을 증진시킨다’, ‘흡연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와 같은 확신 등), 또는 흡연의 유희적 요소(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흥밋거리를 찾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흡연이 일상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를 들 수 있다(Cho, 2004; Kim & Kwon, 2006). 또한 Kim & Kwon (2006)은 또래 압력과 같은 사회적 원인이 계기가 되어 흡연이 시작되고,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과 흡연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지속·강화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흡연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성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 문제를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으로 접근하는 사회·심리적 모델(social-psychological model)이 효과적이라고 언급되고 있다(Hwang, Yeagley, & Petosa, 2004). Hwang et al. (2004)은 사회·심리적 모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하위모델-사회영향(social influence), 인지행동(cognitive behavior), 일상기술(life skills)-로 설명하였다. 첫째, 사회영향모델이란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건강, 사회성 그리고 미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동료와 미디어의 영향’, ‘사회규범과 기대 그리고 수용에 관한 내용’을 인식시키고, 모델링, 역할극 또는 집단 상담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금연 기술을 훈련시키는 모델이다. 둘째, 인지행동모델은 흡연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에 개입하여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흡연의 심리학적 원인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흡연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일상을 의미 있게 줄 것이라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Hahm, Hyun, & Lim, 2006). 이러한 인지구조는 흡연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상기술모델은 위의 두 가지 모델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가치정립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금연 프로그램에서 인지행동모델은 인지의 재구성 이외에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Marlatt & Gordon, 1985). 즉, 흡연은 생리적 반응보다는 습관적 패턴의 반복이라 가정되며 습관적 반복을 끊고 재발상황을 대비한 기술훈련을 강조한다.

이러한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wang et al. (2004)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인지행동모델 또는 일상기술모델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Hwang et al., 2004). Sussman et al. (2006)의 메타분석에서도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기반으로 하는 이론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양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Sussman et al. (2006)은 프로그램을 3가지 이론(인지행동이론, 사회영향이론, 동기관련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인지행동이론과 사회영향이론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22개의 한국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메타연구(Kim et al., 2008)에서는 인지행동모델에 이론적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 Jeong (2011)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심리교육, 행동주의교육, 인지행동교육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인지행동교육이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내·외 메타연구에서 인지행동이론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3. 금연 프로그램의 구조와 효과성

사회·심리적 모델에 기반을 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개별연구별로 살펴보았을 때, 같은 모델을 사용한 경우일지라도 프로그램 이후의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차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델 외에 그 프로그램의 운영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Hwang et al. (2004)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기반이 되는 모델과 더불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의 내부 요인(진행방법, 참여학생 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 즉, 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경(학교 측의 협조, 장소 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그 효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구조를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wang et al. (2004)에 따르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구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외부 활동(예: 스포츠, 금연 캠페인, 지역사회봉사 등)을 지원하

는 것이 청소년의 금연에 도움이 된다. 또한 Kim (2010)은 학교 교실이나 학교 내 보건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의료시설이나 가정 또는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금연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아동을 벗어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더라도 학교 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회기수 및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관련하여, Sussman et al. (2006)은 회기수가 5회기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im et al. (2008)의 연구에 따르면, 5-6회기 이상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1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Kim et al. (2008)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인 22개의 논문 중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큰 논문 2편에서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1회, 평균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의 65개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Hwang (2007)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10회기 이상 실시할 경우와 프로그램 종료 1년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follow-up service)이 이루어졌을 경우 더 효과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를 기반으로 5회기 이상, 일주일에 한 번, 평균 50분 정도,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조가 효과성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기존의 문헌을 검토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내용적 측면으로는 인지행동모델이 효과적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행동모델은 흡연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흡연에 노출된 환경적 상황에 저항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으로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주생활공간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규칙적으로 충분한 회기수 및 시간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양적 연구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중 특정요인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요인들이 유의미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즉,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프로그램의 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은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서술해주는 장점이 있다(Padgett,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로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금연강사들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연강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및 구성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연구방법

1. 연구디자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금연강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과 인식, 그리고 효과성 증진에 대한 방안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얻기 위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택된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다(Moon, 2009). 적은 수의 구성원이 임의 추출이 아닌 편의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성원들이 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들은 이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organ & Krueger, 1993).

본 연구에서는 금연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적합한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 흐름에 맞추어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구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및 프로그램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금연강사 경력의 오래되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금연강사를 모집한 후, 그 강사의 홍보를 통하여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다른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금연강사들은 일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에 적합한 잠재 대상자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금연강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진들은 참여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에게 인터뷰는 금연 프로그램에 관하여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였고, 이 중 학교기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인터뷰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금연강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적인 참여인원에 대한 제안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이 이상적이라고 논의되고 있다(Morgan & Scannell, 1998). 하지만, 모든 참여인원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인터뷰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4명 내지 5명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예: Cullen & Webster, 2007; Moon, 2009).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대상자가 좀 더 많을수록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인터뷰의 진행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Yeo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진행에 적합

하다고 선정된 5명의 인원으로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금연강사로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참여자 모두 40-50대 여성으로 대졸 학력자였고, 그 중 3명은 현재 대학원(중독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영자가 개발한 5&6 프로그램(Lee, 2004)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5&6 프로그램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금연에듀케이터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 금연프로그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6회기로 진행되는 5&6 금연프로그램은 1회기는 “나! 나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자기소개 및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2회기는 “서로 이해합시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집단구성원과 공동인식을 갖도록 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3회기는 “담배알기”로 집단구성원들이 금연계획을 세우고 흡연충동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4회기는 “금연합시다”로 효과적인 금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5회기는 “나! 새로운 나”라는 주제 하에 자아 및 타아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고, 마지막 6회기는 “금연 자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흡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금연선서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조는 총 6회기로, 각 회기의 구성은 도입 30분, 프로그램 70분 그리고 종료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도입부에는 지난 일주일에 대한 나누기를 실시하고 종료시에는 폐사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다(Lim, Lee, Lee, & Kim, 2007). 하지만, 금연강사들은 원칙적으로는 5&6 금연프로그램에 기반을 두어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회기수와 시간은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의 상황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내용들은 금연강사의 재량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강사들은 참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 된 프로그램 보다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예: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을 위하여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5회기에 넣기도 함).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Age (Year)	Gender	Education	Years of experience as smoking cessation instructor
A	Kim	49	Female	Master's candidate	5
B	Lee	50	Female	Master's candidate	3
C	Han	50	Female	Bachelor's degree	4
D	Park	43	Female	Master's candidate	4
E	Choi	53	Female	Bachelor's degree	3

3. 자료수집

인터뷰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2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1년도 5월에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며 수집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장소, 시간, 대상, 내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은 무엇입니까?”
- 2) “현재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장소, 시간, 대상, 내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은 무엇입니까?”
- 3) “현재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요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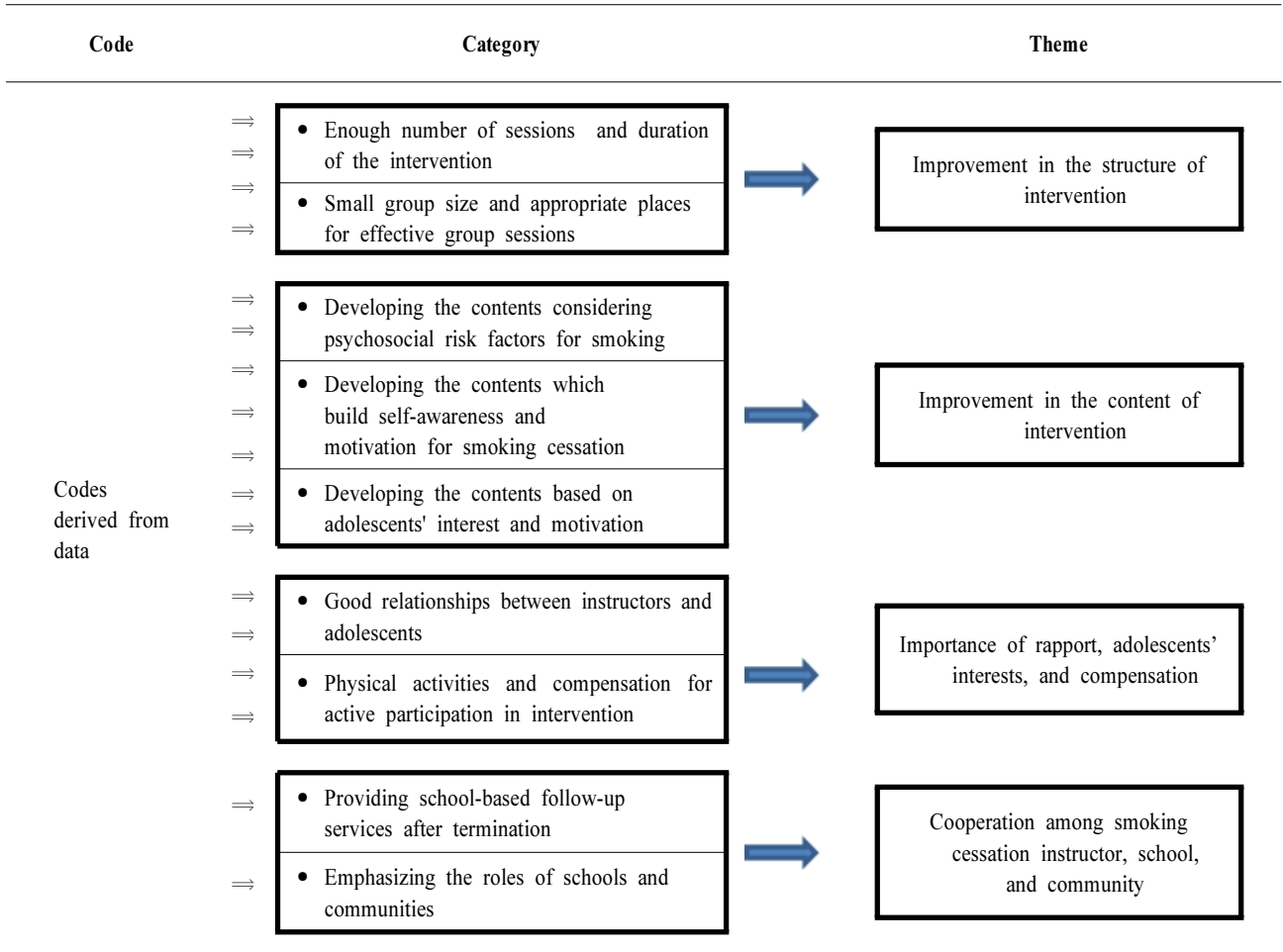
위의 기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내용을 확장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의 참여자들은 질문의 내용들이 녹취될 것임에 동의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분석을 위하여 필사본(transcript)으로 만들어졌다.

4.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은 Van Maanen (1988), Ely, Anzul, Friedman, Garner, & Steinmetz (1991)에 의해 제시된 thematic analysis를 통해 특정 주제별로(identified theme) 분류하였다. Thematic analysis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

히 반영하는 제한된 수의 주제를 찾는 과정으로 분석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Braun & Clarke, 2006). 형성되는 주제는 지속적인 분석과정에서 바뀌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Howitt & Cramer, 2005). 또한 thematic analysis는 자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자료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가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Howitt & Cramer, 2005).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류를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moderator로 참여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1인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한 명이 추가적으로 분석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Ely et al. (1991)이 제시하였던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 두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으며, 주요한 내용들을 코드(code)화하였다. 2) 함께 모여서 서로의 코드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조정하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잠정적인 범주(category)를 작성해 보았다. 3) 잠정적인 범주에 코드화 된 내용들을 분류하였다. 4)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코드를 범주로 분류해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범주들을 수정하며 최종 범주들로 확정하였다. 5) 인터뷰 원 자료 중 범주에 속하는 부분을 선정하였다. 6) 인터뷰 내용과 범주를 고려하며 내용과 범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제(theme)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함께 도출해 나갔다[Figure 1].



[Figure 1] Categories and themes

Thematic analysis는 특정 이론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론이 없는 기초연구에 적합하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도 특정한 이론보다는 임상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주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자료의 패턴과 반복정도를 고려한 다음 최종 주제로 확정하였다. 도출된 최종 주제는 연구에 참여하였던 금연강사에게 제공되었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질적 연구의 해석방법은 도출된 주제를 연구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Chang, 2011). 본 연구는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교사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핵심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핵심 범주를 추출할 수 있다.

- 1) 회기수와 프로그램 시간 확보
- 2) 참여인원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장소 제공
- 3) 흡연의 심리·사회적 요인 관련 내용 포함

- 4) 자아인식 및 변화 동기 강화
- 5)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
- 6) 금연강사와 청소년 간의 라포 형성
- 7) 흥미에 맞는 신체적 활동과 보상
- 8) 프로그램 종결 이후 학교 측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 9) 학교/교사와 지역사회의 참여

이러한 핵심 범주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theme)로 재분류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 구조의 재설정
- 2)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
- 3) 라포 및 흥미와 보상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 4) 금연강사와 학교/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제와 핵심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구조의 재설정

동일한 프로그램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운영 구조에 따라 그 효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즉, 금연강사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충실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그 내용의 전달도구인 프로그램 구조가 부적절하다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범주(회기수와 프로그램 시간 확보, 참여인원과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장소 제공)는 금연강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 구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룬다.

1) 회기수와 프로그램 시간 확보

금연강사들은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회기수와 충분한 진행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시된 회기를 메뉴얼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학교 측은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실시여부에 더욱 초점을 두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금연강사들은 프로그램에 배정된 시간이 비효율적 이어서 학생들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회기수)

“저희는 주로 ‘5&6 금연프로그램’을 해서, 기본적으로 6회를 해야 하는데 6회보다 훨씬 더 짧게 하기를 원하세요. 해야 하니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아이들이 담배를 끊기를 기대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으세요.” (A)

“[학교 측에서는] 3~4회를 많이 원하세요. 한 주일에 한번 꼴로 해서 한 달, 4주에 끝나는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세요.” (C)

“어떤 선생님들은 2주 만에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하시는 데[요]…; 저는 최소한 12회기, 3개월 정도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B)

(프로그램 시간)

“시간상으로도 만약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시작하다가 마는 시간인 거예요. 45분이.” (C)

“한 수업시간, 학교 수업시간(이 45분이예요.) 방과 후에 똑같이 45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땡’ 종소리 치면 일어나요.” (B);

“더 이상 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학원(때문에). 학원가야 해요.” (C)

“그리고 자기가 다 스케줄이 있어서 정말 그 시간, 방과 후에 남는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교사도 그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니코프리스쿨을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그렇게 30분. 빨리 먹고 그 시간에 [니코프리스쿨을 진행해요.]” (A)

“제가 ○○ 중학교에서 니코프리스업을 한 2년 했는데, 점심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20분했어요. 애들 늦게 와요, 그리고 또 일찍 가요. 그래서 형식적인 수업이 됐어요.” (D)

2) 참여인원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장소 제공

금연강사들은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집단 프로그램의 성격보다는 강의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 무작위로 비어있는 교실에서 진행되거나, 장소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협소하거나 테이블조차 놓여 있지 않아 금연 프로그램에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미비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참여인원)

“수가 많지 않아야 해요. 4명에서 한 6명 이 정도가 되면 너무너무 잘 진행돼요. 가장 문제는 인원[이예요]...,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일회성으로 하게 돼요. 이럴 경우 한 번에 30~40명을 커버하고 나올 때는 가는 우리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이들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

“한 40명 모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항상 10명 내외로 모아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거의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건 제 능력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걸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강의식으로 밖에 갈 수 없으면 효율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미 학생들이 금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 한 반에 30명-40명. 정말 이거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B)

(장소)

“테이블 셋팅도 안돼요.” (C)

“테이블 셋팅도 안되고, 그냥 애들을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B)

“과학실이 비었다. 그럼 과학실에 가서 해요.” (A)

“신체활동도 제대로 안되고...” (E)

2. 프로그램 내용 개선

문헌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의 원인인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인지구조와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금연강사들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다음의 세 가지 범주(흡연의 심리·사회적인 요인

관련 내용 포함; 자아인식 및 변화 동기 강화; 청소년들의 동기 증진 및 관심 유발 내용)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1) 흡연의 심리·사회적 요인 관련 내용 포함

인터뷰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으로 흡연의 원인(심리·사회학적 원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원인 중 상당부분은 또래 집단과 가족의 영향이고,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또래 집단과의 관계 재정립과 가족에 대한 개입이 향후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담배에 관한 비합리적인 지를 재구조화하고 환경적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적 원인)

“[또래압력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혼자 왕따 당할까봐, 혼자서 거절하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집단을 대단히[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A)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배를 끊고 싶으면 담배피우는 친구를 먼저 끊어라. 끊기 싫으면 같이 해야 한다. ‘네가 담배 끊지 못하는 이유는 중독이 많이 되었다기보다, 담배를 피우는 네 친구와 서로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이 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줘요.” (B)

“가족 가운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냐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족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60~90% 나와요.” (C)

(심리적 원인)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유일하게 담배로 하는 아이에게 그걸 홀랑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하는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바깥놀이가 좀 들어가면 맨날 안에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 결국 거기다 또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 바깥 놀이가 좀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 관리...” (B)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짧게 편집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갖고 들어가는데, 스

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거기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이야기 해주니까 [도움이 되요.]” (B)

2) 자아인식 및 변화 동기 강화

인터뷰에 참여한 금연강사들은 청소년 흡연의 근본적 원인이 심리·사회적 원인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은 흡연 자체만을 다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에게는 금연을 해야 하는 명확한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아인식 및 변화동기)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초점으로 이야기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중학교 아이들은 성인의 시점으로 볼 때, 흡연의 동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의 동기도 없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류한 것이고 개네 입장으로 곁에서 볼 때는 담배 피운 것도 ‘그냥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담배 끊는 것도 ‘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C)

“저는 사실 금연보다 어떤 부분을 하나면,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금연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한테 강제로 걸려서 왔는데, 그것만 계속 다루면 어쩔 수 없이, ‘왜 피웠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엄마가 그래서요, 짜증났어요,’ ‘선생님이, 오늘도요 저는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씩 하고. 그러니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마음에 그런 동기가 확실하게 잡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B)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연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께는 미리 말씀드려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금연이 아니고 변화다.” 아이들의 지식을 증진시켜서 자아인식이 변할 수 있다면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아이들의 금연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아마 이것 6회차가 끝난 다음이면, 바로 다음날 피울꺼예요.” (B)

3) 청소년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

금연강사들은 현재 진행되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흡연

과 질병발생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고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계에 관심이 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금연강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외모, 이성 친구,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흡연 정보를 제공할 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기 유발 및 관심 증진)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질병 쪽 보다는... 제가 사실 청소년기에 병이 무서웠나? 안 무서웠거든요... 오히려 외모에 끼치는 영향이 반드시 한 번 더 들어가 주면 이게 훨씬 먹히기가 쉽고요. 간접흡연이 나쁘다 말고, ‘네가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가잖아?’ 이걸 별로 안 먹히는데요. [만약에] ‘니가 네 여자 친구한테 뽀뽀를 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네 여자 친구의 몸 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너 그 여자 친구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처음에는 ‘에이...’ 이러다가도 이게 막히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B)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피부, 키, 몸매에 초점을 두어, ‘니코틴은 몸에 들어온 지방을 빼고 옆구리에 보내니까, 너희가 살 빼려고 담배를 피웠잖아 아무 소용없어. 빼고 허리가 더 나왔는데 S 라인 되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B)

“아이들 직업과 관련해서, 연예인이 선호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비’같이, ‘보아’같이 노래하거나 댄서가 될 수 있나? 이것도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주로 또 요즘아이들, 예체능 중에 체육 쪽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라든지, 직업군 가운데서 육체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군인, 직업군인 같은 거 이야기 할 때도. 남자아이들은 또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C)

3. 리포 및 흥미와 보상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흥미와 보상이 바탕이 된 프로그램은 문헌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금연강사와의 리포(rapport)가 형성된 청소년들이며 이 경우 금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보상은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의 두 가지 범주(금연강사와 청소년 간의 라포 형성; 흥미에 맞는 신체적 활동과 보상)는 금연강사들이 경험한 금연 프로그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금연강사와 청소년 간의 라포 형성

금연강사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연강사와 청소년 사이에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라포가 형성되면 청소년들은 내면의 금연 의지를 드러내며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라포 형성)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약간 뭐랄까, 학교에서 끊임 없이 지적 받아온 아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라포 형성을 위해서 게임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B)

“아이들이 내면에는 하고 싶지만 외서는 ‘나 안 할거예요, 내가 피우는데 뭐 어때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포 형성이 잘 되면 내면화했던 것이 올라오거든요.” (D)

2) 흥미에 맞는 신체적 활동과 보상

금연강사들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참여자인 만큼 프로그램의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게임과 스킨쉽을 통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금연강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강의식으로 정보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과의 스킨쉽이 많았던 프로그램을, 앉아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놀이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또한 금연강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금연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적극성이 감소되므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료나 간식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보상,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체적 활동)

“개네들하고 몸 부딪히면서 같이 게임하고 놀아줬던 부분들 [이 아이들이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깐 수업이 이겨져서 프로그램을 마구 진행하는 것 보다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아줬던 것. 예를 들어서 힘겨루기해서, 코스를 정해서, 서로 부딪치면서, 사과살을 부비면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B)

“저희가 ‘○○ 금연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재미가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D)

(보상)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은] 애들 쪽에서 보았을 때 보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미있고. 뭘 많이 주고.” (D)

“게임을 하고 하다못해 사탕을 하나 줘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와~’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무언가 먹여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B)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먹는 보상을 많이 주지만. 그래서 수업 기법 상에서 저희가 매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마인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주는 보상이 더 강하고요.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C)

“선생님이 애들을 모은 다음날, 우리가 팁도 주고 보상도 주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를 준다, 봉사점수를 준다, 내지는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빼준다’라는 좀 이런 학교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 보상을 주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C)

4. 금연강사와 학교/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

금연강사와 학교/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은 문헌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 금연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에도 금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체계들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1) 프로그램 종결 이후 학교 측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금연강사들은 흡연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적 금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측과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사후관리)

“만약에 정책적으로 시작된다면 일회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패턴에서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던데 그런 부분까지 감당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A)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어차피 8회기도 6회기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건선생님이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B)

“그 부분(금연)들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 쪽으로 정말 그 강사들이 필요해요.” (E)

“저희가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논의하면서 나왔던 것이, 계속 follow-up checking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C)

2) 학교/교사와 지역사회와의 참여

금연강사들은 금연을 위해서는 금연교사와 학생들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교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등 사회·환경적 접근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학교/교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체계가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자원임을 강조하였다.

(학교/교사·지역사회의 연계)

“학생주임이고, 더군다나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그 선생님] ‘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피웠어’, 그랬는데 ‘우리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으쌰으쌰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렇게 하니깐 훨씬 낫고. 그 선생님도 거기에 계속, 그 학교에 기본적으로 3년의 패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직을 안하시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들, 모델이 되는 교사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같이 간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항상 아이들을 앞에서 그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사랑 그것이 베이스가 돼야죠.” (A)

“프로그램 중에 등산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등산가시는 거예요. 등산가서 휴지 줘게 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고, 삼겹살파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기적으로도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연계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제가 그거보고 ‘아, 애네들은 담배를 피우던 아이들도 많이 끊겠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B)

“삼위일체론인 것 같아요. ‘금연교실을 잘 진행했다’ 또는 ‘잘 진행하지 못했다’, ‘결과가 좋다’ 또는 ‘나빴다’는 딱 세 박자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보건소 마인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저(금연강사)인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잘된 데는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기억도 좋았는데, 그 중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안돼요. 보건소 강사는 열심히인데 학교에서 뒤로 빠진다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인데 보건소 담당자가 뒤로 빠진다면지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서, 아까 사실 장소배정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기억이 있어요. 같이 가야 하는데.” (C)

IV. 논의

본 연구는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금연강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5명의 금연강사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금연강사들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된다(①프로그램 구조의 재설정 ② 프로그램의 내용의 개선 ③ 라포형성 및 흥미와 보상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④ 금연강사와 학교/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 이러한 네 가지 주제는 외부강사들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경험한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및 구조상의 개선 방향 제시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회기 수와 충분한 진행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금연강사들은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회기 이상,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학교라는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 측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측에서는 30~4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의형식의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거나, 짧은 회기 수와 시간 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장소 측면에서도 집단상담에 적절한 장소가 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 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측과의 충분한 협의의 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은 학교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충분한 인프라가 제공될 때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사전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또한 금연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예: 신체 활동이 들어가는 경우 적당한 공간이 있는 장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 확보도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다양한 메타분석은 ‘인지행동 모델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고(Kim et al., 2008; Sussman et al., 2006),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인지행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도 금연강사들은 청소년의 흡연 동기가 심리적인 원인(예를 들어 우울증과 불안감, 스트레스)과 사회적인

원인(예를 들어 또래 집단 압력이나 흡연 가족구성원에 대한 동일시)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인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지를 재구성한 다음 금연 과정을 행동으로 훈련(예를 들어 거절훈련,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연강사들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소년들의 인지 수준과 사회적 상황에 맞아야 청소년들이 금연에 관한 동기를 형성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일례로 먼 미래에 걸릴지 모를 폐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흡연이 자신의 외모와 구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금연의 동기가 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 강사들은 참여 청소년들과 충분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프로그램 초기단계부터 라포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시행 기법은 ‘흥미와 보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강제성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연강사들은 청소년들을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롭고 그 참여 과정에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임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청소년들과의 라포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즉, 금연 프로그램 진행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Chun & Song (2010)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에서 신체 활동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Chun & Song (2010)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금연과 활동성 있는 놀이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이 들어있는 흥미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았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메뉴얼화되어있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재량이 가능한 부분에서 신체 활동을 적극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간식 제공과 같은 비공식적 보상뿐 아니라 봉사 점수의 제공이나 의무 활동의 면제와 같은 공식적 보상을 제공할 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증

진시킬 수 있다.

넷째, 금연강사와 학교/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공전략은 ‘학교 그리고 가족·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이다(Kim, 2010).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현재는 외부강사와 교사와의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외부강사보다는 학교의 교사를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 교사나 일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금연교육을 기획하게 되어, 일관된 금연교육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Kim & Kang, 2007). 또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하는 것도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Hwa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금연강사들은 학교 교사가 주체가 되어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외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Substance Abuse &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에서 청소년 금연 증거기반 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인지행동 접근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Dr. Sussman의 Project EX와 사회인지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의 Not-On-Tobacco 프로그램이다(Myers & Kelly, 2006; Horn, Dino, Kalsekar, & Mody, 2005). 이 두 프로그램은 미국 청소년들 뿐 아니라 스페인계, 미국 인디언, 중국 등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직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이 필요하다. Chun & Song (2010)은 한국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이 두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8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첫 회기부터 동기강화와 라포 형성 과정을 계입을 통하여 진행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도록 하였다. 프로그

램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신체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금연 교육이 일회성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스스로 금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연의 실제적 실천 적용 방안과 합리적 목표 세우기’, ‘금연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작성’ 등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 및 향후 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금연 프로그램들은 각 학교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사업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금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금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금연강사에 따르면 학교 교사들의 경우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금연 프로그램이 처벌이라는 인식은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지지와 관심을 철회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프라의 미제공 등 학교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소극적 역할을 유도하게 되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Kang & Kim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지역 40%의 학교에서 일 년에 금연교육으로 책정된 예산이 학교당 11-20만 원이었다. 이 정도 예산은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므로 청소년 금연이 국가 중점사업인 만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금연강사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

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금연강사들은 인터뷰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효과성 증진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는 과정에서 다른 강사들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연강사에게 관련이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진행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보수교육 과정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금연프로그램의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향후 연구방향으로 제안한다. 즉,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전 과정을 평가하여, 처음에 계획한 내용들이 실제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어떤 구조로 진행될 때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금연강사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질적 인터뷰를 통해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고한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현장에서 발현되기 위해서 금연강사,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금연강사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학교기반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 진다면,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중국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소수의 금연강사만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포커스 그룹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을 여러 번 시행하여 신뢰도를 확보한다(Morgan & Scannell, 1998). 하지만 본 연구는 한 번의 인터뷰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금연 프로그램에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일반화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인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연강사가 제시한 내용들은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은 배제한 채 금연강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점과는 상이한 점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통합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ction.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43, 1-18. Atlanta, GA: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hang, H. (2011).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have undertaken community-based instruction.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3), 5-31.
- Cho, H-H. (2004).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e adolescent's smo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n, J. S., & Song, I. S. (2010). The effectiveness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on prob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1(3), 61-89.
- Cullen A. J., & Webster, M. (2007). A user-oriented B2B e-commerce model based on connectivity and purpos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27 (2), 205-225.
- Ely, M., Anzul, M., Friedman, T., Garner, D., & Steinmetz, A. C. (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s within circles*. New York, NY: Falmer.
- George, H. (1992). *Teen age attitudes and behavior concerning tobacco: report of the findings*. Princeton, NJ.: Gallup International Institute.
- Hahm, J., Hyun, M., & Lim, Y. (2006). The effects of stress, significant others' smoking and smoking belief on smoking behavior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 Psychology*, 11(1), 191-207.
- Han, Y. R., Ha, E. H., Park, H. S., & Lee, B. E. (2005). Motivations of adolescents smoking cessation: Use of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1), 55-71.
- Horn, K., Dino, G., Kalsekar, G., & Mody, R. (2005). The impact of Not-On-Tobacco on teen smoking cessation: end of program evaluation res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6), 640-661.
- Howitt, D., & Cramer, D. (2005).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London, England: Pearson.
- Hwang, M. S. (2007). A meta-analysis of adolescent psychosoci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4(5), 1-21.
- Hwang, M. S. (2010). Using focus group interview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 with music therap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4), 131-139.
- Hwang, M. S., Yeagley, K. L., & Petosa, R. (2004). A meta-analysis of adolescent psychosocial smoking prevention programs published between 1978 and 1998 in the United Stat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1(6), 702-719.
- Jeong, M. (2011). *The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smoking teenagers in youth shel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Kang, S., & Kim, S. N. (2005). School-based educational programs for anti-tobacco use at Busan middle and high School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 91-105.
- Kim, M. S., & Kwon, J. H. (2006). The outcome study of cognitive behavioral and behavioral smoking abstinence program for Korean nicotine dependent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1-23.
- Kim, S. J. (1999). *The effect of smoking cessation program using the transtheoretical model on the smoking behavior and psychosocial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Kim, S. N., & Kang, S. Y. (2007). A study on the reality of non-smoking education of school nurses and health teachers holding additional job and a demand for non smoking education in middle school in Busa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1), 1-23.
- Kim, Y., Park, I., & Park, J. S. (2008). Meta-analysis of effects on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04-216.
- Kim, Y. H. (2010).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ty capacity of non-smoking teachers in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4), 2009-2023.
-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Korean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The 6th national online survey on Korean adolescent health status*. Seoul, Korea: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Lee, Y. J. (2004). *For a beautiful life: 5&6 smoking cessation program*. Seoul, Korea: Korean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 Lim, E. S. (2010). Effects of '5&6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5-day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2), 95-108.
- Lim, E. S., Lee, C. Y., Lee, Y. J., & Kim, J. A. (2007). Effects of '5&6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perception, behavior, and physiology of high school smoke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4(4), 115-130.
-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oon, H. L. (2009). Mother's perceptions about early childhood social educatio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09-1020.
- Morgan, D. L., & Krueger, R. A. (1993). When to use focus groups and why. In D. L. Morgan (Ed.), *Successful focus groups: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pp. 3-19). Newbury Park, CA: Sage.
- Morgan, D. L., & Scannell, A. U. (1998). *Planning focus groups*. Thousand Oaks, CA: Sage.
- Myers, M. G., & Kelly, J. (2006). Cigarettes smoking among adolescents with alcohol and other drug use problems. *Alcohol Research & Health*, 29, 221-227.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Park, I. H., & Ryu, H. S. (2000). Correlation among adolescent smoking, st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3(2), 271-282.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8). *Youth statistics*.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Sussman, S., Sun, P., & Dent, C. W. (2006). A meta-analysis of teen cigarette smoking cessation. *Health Psychology*, 25(5), 549-557.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994).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Van Maanen, J. (1988). *Tales of the field: on writing ethnograph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ehe, S. E., Garrison, M. M., Christakis, D. A., Ebel, B. E., & Rivara, F. P. (2005). A systematic review of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trials with long-term follow-up.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3), 162-169.

Yeo, J. Y., Kim, H. J., Shin, J. Y., Shin, Y. K., Seo, B. I., & Yun, S. O. (2005). *Professionals' note for publicity*. Seoul, Korea: Chungnyun-Jungshin.

Yu, B. K., Oh, Y. J., Lee, J. C., Lee, K. H., Min, J. H., & Park, S. H. (2009). A study of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4), 422-428.